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첫 삽’

첨단3지구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 김한중 군수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전진기지로 육성”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데이터센터 구축 공사에 착수하며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했다.

군은 15일 11시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장성군민과 김한중 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계호 지역구 국회의원,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기획재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관계자와 참여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성의 미래 산업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분산 구축의 첫 번째 사례로, 총 39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6메가와트(MW)급 1기로 구성되며, 추후 60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임지 조건도 주목된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첨단·의료산업 발전의 중심지다. 대규모 주거단지도 가까이 인력 확보에 용이하며, 다양한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조성에 뛰어난 장성군은 광주도 시공사와 부지 매매 약정계약을 체결하



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업무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장성군과 전라남도·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획재

정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745억 원, 산단 환경개선펀드 41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2028년 2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데이터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이어, 비디오테이프(VHS)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돌잔치와 결혼식, 회갑연, 체육대회, 마을 행사 등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이 담긴 아날로그 영상기록물을 디지털로 보존해, 사라져 가는 기억을 다시 꺼내고 기록문화 확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

담양군,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2차 추진 아날로그 영상 속 기억을 다시 만나는 두 번째 이야기

련됐다. 지난 1차 사업에 참여했던 한 군민은 “희미하게 떠올랐던 기억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짧고 예뻐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2차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군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변환 대상은 비디오테이프(VHS)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변환할 비디오테이프와 외장하드,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저장매체, 신분증을 지참해 담양군청 기록관(미래성장동 2층)을 방문하면 된다. 변환된 영상물의 기

중을 희망할 경우, 기록물 사본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 로포데이, 20일 영암읍서 ‘미리’ 크리스마스

눈꽃 흠날리는 버블쇼, 재즈 캐럴을 선사하는 영암로포데이가 영암읍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일 12월 로포데이로 가족·친구·연인 모두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한다.

청년문화를 영암군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영암로포데이는 성탄절을 앞둔 토요일을 미리 맞는 크리스마스 채운다.

행사의 분위기는 관객 참여형 미니 게임을 시작으로, 서호중학교 댄스팀의 공연과 곡승 밴드의 라이브 버스킹이 펼쳐질다.

이어 흠날리는 눈꽃을 연상하게 만드는 버블타이거의 눈꽃버블쇼,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5인조 재즈 밴드 NS의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가 관객들의 주말을 책임진다.

해가 지면, 행사 방문객들은 소원을 적은 장식볼 오너먼트를 들고 점등식에 참여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하 빛을 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밖에도 로포데이 행사장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보물찾기 투어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5일마켓 부스에는 영암군민으로 구성된 27팀의 판매자가 참여해 스낵 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2026년도 달



력 만들기 △종탑 무드등 만들기 △쿠키 아이싱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해물김치전, 로제떡볶이, 고구마·호박 스프 등 특색 있는 먹거리와 지역 농산물, 수공예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증, 응모권 추첨, 로포데이 20% 캐시백 등 즐거움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말연시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카메라 뉴스



진도군,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딸기 수확 본격화

진도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올해의 첫 딸기가 생산되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다.

진도군은 청년과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총 18억 원을 투입해 자동으로 온도와 재배 환경을 관리하고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농장(스마트팜) 2동을 조성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5월에 청년 농업인 2명을 임차인으로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이다. 입차 농가는 올해 9월부터 ‘선향 딸기’ 모종을 농장 1동당 11,000주씩 심어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고, 11월에 첫 수확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진도/오재영 기자



영광군,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12월 15일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관리과, 안전보안관 등 40명이 참여해 군민들이 겨울철 재난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에 따라 군민들이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 등을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안전보안관 회원들은 버스터미널 승객과 통시장 및 인근 상점 상인, 방문객에게 한파 예방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대처 방법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며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군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 예방 조치를 안내하여 안전을 도모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환경개선사업 완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2일 광주은행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추진해 운남면 에덴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상희)의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와 교육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00만 원이 투입돼 싱크대 교체, 책상·의자 교체, 비가림막 및 신발장 설치 등 학습·위생·안전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